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결 “윤 파면 기각 시, 즉시 현장을 멈추고 거리로”

- 4일 현재 선고 전까지, 철야농성 등 사력 다해 투쟁하기로
- 양경수 위원장 “앞장서 달려온 4개월, 윤석열 파면 종지부를 찍자”
- 현대, 기아, GM 지부장 “강력한 총파업투쟁으로 항쟁, 끝까지 싸우겠다”

민주노총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기각 시, 즉시 현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설 것이며, 7일 전 조합원이 현장을 멈추는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3일 광화문 서십자각 대로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3일)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전국 대의원들이 긴급하게 집결했다.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안건은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투쟁 방침 건'으로, 단일 안건이다. 대의원 재적 인원 1,782명 중 1,177명이 참석해 회의가 성사해 개최했다. 참가한 대의원들의 뜨거운 결의를 서로 확인하며,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4개월 우리는 가장 먼저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 앞장서 달려온 4개월이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자”라면서 “한편으로는 예비하자.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든 저들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혹여라도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판단을 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명운을 걸고 그 즉각 거리로 뛰어나와야 한다”고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공장을 멈추고 컴퓨터를 끄고, 팬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거리로 달려 나와 함께 싸우자. 오늘 대의원회의를 통해 힘 있게 결의하자”라며 “헌법재판소의 8대 0 파면을 기대하며 가슴 속에는 타오르는 불꽃을 유지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세로 오늘부터의 1박 일생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쯤에는 멋지게 축배를 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현대, 기아, 한국지엠 지부장 발언을 비롯해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절박한 심정과 뜨거운 결의를 확인했다.

금속노조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우리는 확신한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4만3천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총파업투쟁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아차 하임봉 지부장은 “현재가 파면을 기각한다면 민주주의 수호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종말을 선언이다.

총파업으로 항쟁하면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한국지엠 지부장은“조합원 총파업으로 내란 수괴 파면을 넘어 이 세상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위원장의 결의 발언이 이어졌다.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 “내일 윤석열 파면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언론노조는 언론 장악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투쟁에 앞장서 나서겠다”

비정규교수노조 박중열 위원장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차별철폐를 위해 싸워온 우리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책을 잡고 분필을 던지고 거리로 나서겠다”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대위원장 “헌재 기각 시 윤석열을 헌법의 절차가 아니라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손으로 끌어내는 투쟁 함께 만들겠다”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 “건설노조 간부 2천여명이 경찰에 소환됐다. 42명이 구속됐고, 4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할 수 없도록 건설노동자들이 나서서 투쟁하겠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어제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금속노조는 언제나 그랬듯이 총파업 투쟁 현장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무너뜨리는 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기각 시, 총파업 투쟁에 힘을 다하겠다. 이제 이 땅의 모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이 달려가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탄핵이 기각된다면 총파업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4.3 제주항쟁 77주년이다. 기각이면 항쟁이다 라는 마음으로 투쟁하겠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전교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상원 수첩에 당당히 수거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조직이다. 기각될 시 총파업으로 나서겠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지금이 정세야말로 저들을 믿고 동지를 믿고 거침없이 투쟁해야 하는 시기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어차피 윤석열 나오면 주식시장이며, 금융시작이며 경제가 파탄난다. 현장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겠다”

정보경제연맹 김용태 위원장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일 4월 4일 11시 이 주문을 꼭 듣고 싶다. 만약 기각 시에는 내란 세력 모두를 수거하여 폐기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대학노조 임효진 위원장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과 하나되어 단박에 거리로 나올 것이다”

화섬노조 신한섭 위원장 “반드시 윤석열 파면시키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다 같이 힘차게 투쟁하자”

[붙임]

1. 대회 개요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3. 대의원대회 의결 투쟁 방침

4. 대의원대회 결의문

[첨부] 대회 사진

[붙임] 1. 대회 개요

○ 2025 민주노총 83차 임시대의원대회

- 일시 : 2025.4.3(목) 14시
-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터
- 안건 :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투쟁 방침 건

시간	순서	비고
14:00	민중의례	고미경 사무총장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감표위원 선출	
	회순 심의	
	안건 심의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투쟁 방침 건’
	결의문 낭독	
	폐회, 민주노총가 제창	

[붙임]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전국에서 모여주신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 그리고 확대 간부 동지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차게 투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민주노총 역사상 야외에서 이렇게 대의원 대회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점거하고 투쟁할 때 김천에서 도로공사 마당에서 대의원대회를 한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 차가 다니고 농성장이 즐비한 거리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 듯합니다. 햇볕이 많이 따갑습니다. 그래도 민주노총이기에 이런 자리를 이런 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제주에서 우리 민중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던 날입니다. 이승만 독재의 계엄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민중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계엄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없애겠다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과 국회를 겁박했습니다.

그들의 목적도, 그들의 이유도, 진행 과정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다를 것입니다. 이승만은 수년간 무참히 민중을 학살했지만, 윤석열의 계엄은 노동자 민중의 항쟁을 통해 빛의 혁명을 통해 내일 철저히 제압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4개월 우리는 가장 먼저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석열의 체포 구속을 통해 구속을 위해 한남동에서 눈보라와 비바람을 견디며 싸워냈습니다. 윤석열의 석방에 분노한 민심을 앞장서 총파업 투쟁으로 맞섰고, 시민들이 시민 파업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앞장서 달려온 4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싸워온 4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종지부를 찍읍시다.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 그리고 내란 공조했던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하는 것 그 토대 위에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빼앗긴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와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찾고 양회동 열사의 한을 풀어냅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든 저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왔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혹여라도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판단을 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명운을 걸고 그 즉각 거리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공장을 멈추고 컴퓨터를 끄고, 펜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거리로 달려나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길이자,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의원회의를 통해 힘 있게 결의하고 결정합시다.

헌법재판소의 8대 0 파면을 기대하며 가슴 속에는 타오르는 불꽃을 유지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세로 오늘부터의 1박 일생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쯤에는 멋지게 축배를 듭시다. 고맙습니다.

[붙임] 3. 대의원대회 의결 투쟁 방침

현재 파면 승리를 위한 총력 투쟁

민주노총은 4월4일 윤석열 파면 투쟁을 승리로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한다.

- ☐ 민주노총은 현재 파면 확정 마지막 순간까지 72시간 비상 투쟁에 총력을 다한다.
- ✓ 4월 3일, 민주노총 확대 간부는 결의대회 후 현재 앞 1박 2일 농성 투쟁(수도권)에 집중한다.
- ✓ 4월 4일, 민주노총 확대 간부 및 조합원은 아침 출근 선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수도권은 현재 앞, 지역은 각 거점에서 현재 파면 촉구 집회에 집중한다.
- ☐ 현재 파면 확정시, 4월 5일 민주노총 조합원은 서울 및 지역별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승리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한다.

현재 파면 기각 시 민주노총 방침

- ☐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검찰, 현재 등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개헌 및 사회대개혁의 길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결사 투쟁에 나선다.
- ☐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은 기각 즉시 조합원 설명회, 현장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즉시 현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간다. 4월 4일(금) 저녁 탄핵 기각 규탄대회에 조합원 참가를 조직한다.
- ☐ 민주노총은 4월 5일(토) 전국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총력 항쟁에 나선다.
- ☐ 민주노총은 4월 5일(토) 오전 10시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후 투쟁 방침을 구체화한다.
- ☐ 민주노총은 4월 7일(월) 전 조직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붙임] 4. 83차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문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계엄 선포 이후 121일이 지났다. 민주노총은 계엄 당일 국회부터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맨 앞장에 서서 길을 열었다. 광장의 시간은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며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하라!

윤석열과 그 일당의 명백한 위헌, 내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제야 선고일을 지정하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책임을 방기한 직무 유기다.

총과 장갑차,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의 범죄를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망설임 이유가 무엇인가?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내란수괴는 법 기술자들에 의해 탈옥했고 폭동과 위협이 난무했다.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기나긴 투쟁을 이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다하라. 내란수괴를 파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탄핵을 기각하여 내란에 동조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더 단호하게 더 강력하게 싸울 것을 천명한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일본일초도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4월 4일 윤석열 파면을 확정을 짓고, 4월 5일 광화문에서, 전국의 거리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새로운 투쟁을 선언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땅의 적폐,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우리 힘으로 노동 존중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만에 하나 기각 시,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윤석열의 복귀는 민주주의 사망선고이며, 한국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 민주노총은 사생결단의 총파업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의 결의】

첫째, 민주노총은 4월4일 윤석열 파면투쟁을 승리로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현재 파면 기각 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과 국민의 힘, 검찰, 현재 등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개헌 및 사회대개혁의 길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결사투쟁에 나선다.

하나,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은 기각 즉시 조합원 설명회, 현장규탄대회를 진행하며 4월 4일(금) 저녁 탄핵 기각 규탄대회에 조합원 참가를 조직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4월 5일(토) 전국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총력항쟁에 나선다.

하나, 민주노총은 4월 7일(월) 전조직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2025년 4월 3일

민주노총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